



글. 최재일 아리랑국제방송 사원

처음 원고를 부탁받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받은 주제도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자유주제’... 사실 요즘 육아에 너무 치여 살고 있어서 회사와 육아 외에는 이렇다 할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풀어볼 주제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 회사 이야기를 써볼까...? 아니야 방송 이야기는 안돼... 그러면 뭐가 좋을 까... 고민하다 보니 결론은 하나 육아뿐이었다.

세상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자랑이 남의 자식 자랑이고, 보기 싫은 게 남의 집 아기 사진이라던데 본 원고를 보시는 독자들에게 넓은 아량과 이해를 구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2018년 3월 8일 새벽 일찍 긴급한 제왕절개 수술로 우리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 눈 깜빡할 사이에 1년이 지나고 아내의 복직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즈음해서 나도 뉴스 파트로 보직을 옮기게 되었고 교대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었다. 처가 근처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할 집에 맞추어야 했는데, 집이 확정되지 않으니 어린이집 정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다. 신생아 수는 매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작 어린이 집은 대기가 길어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없었다.

새벽 근무를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오후에는 집과 어린이 집을 보러 다녔다. 몸은 축나지만 매번 연차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교대근무의 장점이다.

아내가 복직을 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 본격적으로 육아라이프가 시작되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일단 내가 새벽 출근을 하는 날이면 하원 및 저녁 보육을, 오후 출근하는 날은 아이 등원과 집안일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가온 출근 첫날, ‘엄마가 없는 아침에 나와 둘이 있어도 괜찮을까?’ 싶었지만 아이는 이내 적응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야근	야근	일근	조근	조근	휴일	야근 (반복시작)

'야야일조조휴' 패턴으로 근무를 하며, 조근과 일근이 주말에 걸리면 쉬는 날이 된다.
※ 아리랑 티비는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합니다.

밤 근무

우리집은 아침 7시 반이면 모두 기상한다. 가끔 아이가 늦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다. 아내는 출근 준비에 정신이 없고, 나는 아이를 보며 아침 준비를 한다. 요즘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유일하게 먹는 반찬인 불고기를 볶아대느라 더 정신이 없다. TV가 아이들 정서발달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은 TV라는데 있어서 참 고맙다. 8시에 시작하는 '딩동댕 유치원'부터 '띠띠뽀'... '슈퍼윙스'... 정말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9시 15분 마샤와 곰이 시작되면 슬슬 옷 입히고 등원할 시간이다. 이때가 되면 내 마음도 한결 편해진다. (이 자리를 빌려 EBS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아이를 보내고 나면 보통 10시 정도가 된다. 출근은 14시이기 때문에 대략 4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회사까지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 정도 된다. 하지만 이 시간도 쓸 수는 없다. 어질러진 집 정리, 빨래, 빨래 개기, 설거지, 재활용 버리기 등등 일이 많다. 모두 하루에 몰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세 가지만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시간을 쪼개 쓰다 보면 점심은 그냥 거르고 나가기 일쑤다. 며칠 전 아파트 물탱크 청소로 아침에 물이 나오지 않은 날이 있는데, 정말로 좋았다. 물이 안 나오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밥도 사 먹고 내내 집에서 쉬다 나가니 이렇게 좋을 수가! 단수 만세!

하원은 엄마가 퇴근하고 7시쯤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린 이집에서 가장 늦게 하원 한다. 늦게 하원 하는 날은 어린 이집 선생님도 야근하는 날이 돼버리기 때문에 신경이 참 많이 쓰인다. 회사에서도 아이 생각에 6시만 되면 아내에게 퇴근했는지 연락을 하게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난 탓에 19시 뉴스가 끝날 때가 되면 긴장이 풀리고 피곤이 밀려온다. 22시 뉴스까지 마치고 퇴근하면 대략 24시가 안 되어 집에 도착한다. 내일 아침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 서둘러 씻고 잠자리에 든다.



기분 좋은 어느 날



기분 좋은 하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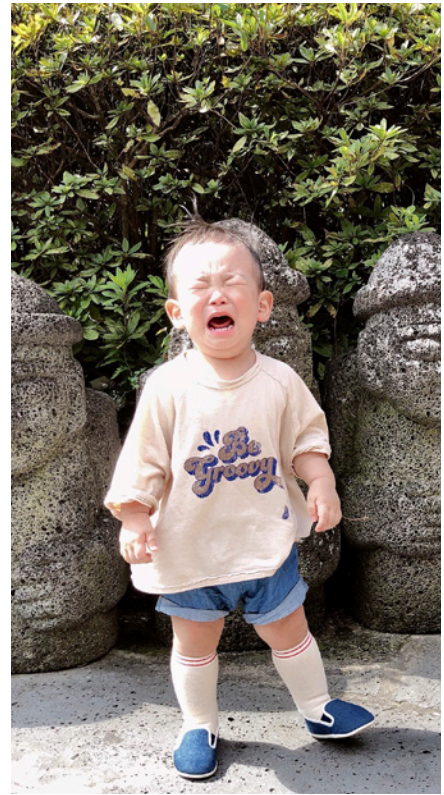
나는야 패션 모델



소비요정되는 날



바다친구들 보는 날



걷기 싫은 어느 날

새벽 근무

새벽 근무 날은 05시에 집을 나선다. 그러면 어린이집 등원은 장모님께서 해주시고 15시에 퇴근해서 16시쯤 내가 아이를 하원 시키게 된다. 불과 1, 2개월 전만 해도 하원 후 바로 집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아이가 커서 아파트 광장이나 놀이터에서 한참을 놀다가 들어간다. 오래 놀다 들어갈수록 아이가 저녁밥도 잘 먹고 잠도 빨리든다. 새벽 출근의 여파로 피곤하지만 운동장의 놀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아파트 광장에서는 보통 달리기나 화단에서 개미찾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딱히 손이 가는 일이 없지만 하원한 어린이집 친구들이 다 모여있어서 다른 학부모나 아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아빠가 아이를 하원하는 집이 하나도 없어서 처음엔 다른 아이 엄마들과의 인사가 서먹했지만, 아이라는 공통요소 덕분에 금세 안면도 트고 동네 마트에서 만나도 편하게 인사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쪽 아이는 요즘 어때요? 밥은 잘 먹나요? 감기는 어때요? 말은 좀 시작했나요? 등등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다 보면 어느 아이엄마들과 다르지 않게 긴 수다를 떨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열심히 아이를 놀리고 6시가 안 되어 집으로 들어간다. 밥을 준비하는 중에 언제 아이가 나를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재빨리 ‘보니하니’를 틀어준다. 돌아가는 돌림판을 보며 정신이 뻗긴 사이에 빨리 저녁준비를 한다. 밥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아이와 씨름하다 보면 아내가 집에 온다. 퇴근한 아내는 옷갈아 입을 새도 없이 저녁준비를 한다. 저녁 먹을 때는 보통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데 요즘엔 샤인머스켓에 폭 빠져 있다.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포도값에 지갑이 얇아진다.

저녁을 먹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나는 아이 목욕을 시킨다. 요즘은 물놀이 장난감들을 잘 가지고 놀아 많이 수월해졌는데, 여전히 머리를 감을 때면 오열을 하고 난리가 난다. 더 놀고 싶어 하는 아이를 어렵게 설득하고 나오면 오늘 하루 일정도 거의 끝이 난다. 내가 아이를 보는 시간이 많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잘 때는 엄마를 찾기 때문에 아이를 재우는 건 아내의 몫이다. 아이를 재우고 나온 아내와 TV를 보며 한 시간 정도 수다를 떠다. 문득 시계를 보면 어느새 시간은 11시다. 피로가 몰려온다. 씻는 등 마는 등 하며 이내 잠자리에 든다.

글을 마무리하며

아이를 다 키우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다 하실 것 같고, 한창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을 해주실 것 같고, 우리 아내가 보면 누가 보면 혼자 애 다키우는 줄 알겠다 할 것 같다. 첫 아이라 요령도 없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참 힘들다. 앞뒤 없이 오열하는 아이를 보면 답답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좋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서안이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꼭 아빠를 찾아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를 찾는데, 집에서 잘해주시나 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인지도 모르지만 이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되었다.

가끔 아내도 ‘너는 정말 좋은 아빠야.’ 라는 말을 무심히 던질 때가 있다. 짧지만 힘이 나는 한마디다.

문득 엄마, 아빠가 생각한다. 퇴근길에 집에 전화한 통 드려야겠다. ☎